

장수사회의 불안과 '귀여운 할머니'에 맞선 40년

고령사회 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지은숙

1. 고령화사회와 여성운동의 1막

일본인은 1500년대부터 오랫동안 인생 50세 시대를 살아왔다. 높은 임산부 사망률 때문에 20세기 초까지 성별에 따른 수명 차이도 거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7년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 50.06세, 여성 53.96세였다. 전후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평균 수명은 착실하게 증가했고 1955년에는 남성 63.60세, 여성 67.75세로 상승했다. 이때 까지도 일본인에게 수명 연장은 '더 이상 전후가 아닌' 증거이자 성과로 기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70년 일본의 고령화율이 7%를 넘어 '고령화가 진행 중인 사회'를 의미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1985년 처음으로 여성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고령화가 초래할 사회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지은숙(池恩叔) 2016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비혼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가족관계와 젠더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비혼화와 돌봄 문제, 1인가구의 증가와 친밀성의 재구성, 여성들의 초국적 이주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이 글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집필되었음(NRF-2019 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3.28.178>

불안의 진원지는 전혀 없는 고령화의 속도였다. 고령화율이 7%에서 14%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배가 연수라고 부르는데, 고령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한다. 1994년에 고령화율이 14%를 넘겨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배가 연수가 24년으로 산업화된 국가 중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을 기록했다. 프랑스의 배가 연수는 126년, 스웨덴은 86년, 미국은 72년, 배가 연수가 눈에 띄게 짧았던 영국도 47년이였다. 배가 연수가 짧다는 것은 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은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정책 등의 사회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장수하는 사람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암울한 미래가 다가온다는 대중적 불안감을 자극했다.

1980년대까지도 일본에서 고령화와 노인 문제는 남성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사회적 관심은 길어진 노후와 소득 문제에 치우쳐 있었고, 생계부양자인 남성의 관점에서 정년연장이나 은퇴 후 재취업 문제 등이 공론장을 주도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혼인율이 높아 고령자 남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여성은 그 그늘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나이 들지 않는다는 현실을 간과한 접근이었다.

우선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산다. 하지만 더 길게 아프고 생활의 제약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받는다. 이러한 차이를 최근에는 건강수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수치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건강수명은 자립해서 생활하는 평균 기간을 산출하기 위한 개념인데, 평균수명에서 아파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결과를 자립 생활 기간 즉 건강수명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돌봄이 필요한 기간인 셈인데 이 기간이 2019년 내각부 조사를 보면 남성이 약 9년인데 비해 여성은 약 12년이였다. 이러한 여성의 육체적 취약성에 더해 연금이 적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빈곤한 고령자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경제적인 취약성, 그리고 무엇보다 장수화에 따라 여성들의 노인돌봄 부담이 증

가하고 있다는 현실은 고령화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여성의 관점에서 고령화에 접근하는 공적 담론의 공백 속에서 1980년대부터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귀여운 할머니가 되자’는 여성 노인상이 슬그머니 부상했다. ‘귀여운 할머니’(かわいいおばあちゃん)라는 이 새로운 노년 여성의 이미지는 노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대안으로 수용되었다. 싱글맘이 된 후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여성과 가족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평론과 저술 활동을 전개해 온 히구치 게이코(樋口恵子)는 일찍부터 이러한 상황에 주목했다. 전국의 고령자 개호의 현장을 취재하고 다니던 히구치는 여성들이 ‘귀여운 할머니가 되자’는 도달 불가능한 목표에 자신들의 노후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배후에 노인돌봄을 여성 가족원 특히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현실이 있음에 주목했다.

2000년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전의 일본에서는 개호는 가정에서 맡는 것이 당연하고, 특히 며느리의 일로 간주되었다. 장수화와 더불어 여성들의 개호 기간이 장기화되었어도, 개호를 여성 단 한 명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히구치 게이코는 이렇듯 여성 가족원을 일본 복지의 ‘숨겨둔 자산’으로 간주하는 가족의존적 사회보장시스템이 돌봄제공자인 여성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뿐 아니라 향후 돌봄의존자가 될 경우에도 주변 사람에게 ‘귀여운 할머니’이기를 소망하는 것 말고는 어찌해볼 수 없는 무기력과 미래에 대한 비관을 야기한다고 간파한 것이다. 히구치 게이코는 당시 후생성의 중앙사회복지심의회의 노인문제 부서회의에 단 한 명의 여성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여성의 입장에서 본 이러한 문제점을 “여자가 주체넘게 나선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알아듣도록 성실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의제로 채택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할 뿐이었다.”¹⁾

가족돌봄을 통해 노인 문제와 더 이른 시기부터 맞닥뜨리고 수명 연

장으로 더 오랫동안 노인 문제의 당사자가 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공론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히구치 게이코를 비롯해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1982년 9월 10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여성과 노인 문제를 생각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폭우 속에서 개최된 이날의 심포지엄은 회의장 정원의 두 배가 넘는 593명이 참가했고, 의자가 부족해 돛자리를 깔고 앉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개호문제 분과회의에서 가족개호를 위해 일을 그만두고, 활동을 중단하고, 인생을 희생당해 왔다는 여성들의 한탄 섞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양쪽 부모와 조모까지 5명을 혼자 개호했다는 사람도 있었다.² 이날 모임의 열기에 힘입어 히구치 게이코는 ‘며느리를 개호지옥에서 구출한다’는 며느리 해방의 슬로건을 내걸고 1983년 ‘더 나은 고령화사회를 위한 여성의 모임’(高齢化社会をよくする女性の会)을 설립했다. 이후 이 모임은 전국에서 개호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에 대한 제언을 반복해 2000년 개호보험제도 설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표인 히구치 게이코는 ‘개호보험의 어머니’라는 명성을 얻었다.

‘더 나은 고령화사회를 위한 여성의 모임’으로 출발한 모임은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더 나은 고령사회를 위한 여성의 모임’(高齢社会をよくする女性の会)으로 이름을 수정했다. 또 개호보험제도가 출범한 이후에는 히구치 게이코를 이사장으로 NPO법인 ‘더 나은 고령사회를 위한 여성의 모임’(Women’s Association for a Better Aging Society, 이하 WABAS)으로 조직을 정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³ WABAS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 그룹은 단체명은 공유하지만 도쿄 사무국의 지부로

1 「介護保険の母」樋口恵子, 乳がん発見を機に90歳の決断 「みんなが少しでも生きやすくなるように, そんな表彰ならあってもいい」, 『婦人公論』, 2022년 7월 29일, <https://fujinoron.jp/articles/-/6284>(최종검색일: 2023. 1. 28.).

2 女の自立と老いを考える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 「第一回女性による老人問題シンポジウム報告書」, 1982.

3 ‘더 나은 고령사회를 위한 여성의 모임’의 공식 홈페이지는 <http://wabas.sakura.ne.jp/>.

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며 사안에 따라 본부와 결합하는 형태로 움직인다. 설립 후 해마다 빠짐없이 개최해 온 WABAS의 전국대회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회원과 그룹을 결집하는 장의 역할을 해 왔다. 많을 때는 참가 연인원이 7,000~8,000명에 이르는 WABAS의 전국대회는 규슈에서 홋카이도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었고, 지역의 여성운동을 활성화하고 정치세력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비드19(covid19)의 영향으로 대면 만남이 위축되면서 WABAS의 전국대회도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게다가 2021년 히구치 게이코가 유방암 수술을 받아 대외활동을 삼가고 본인의 사후에 대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WABAS의 활동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히구치 게이코는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것을 실행에 옮겼다. 본인의 사재를 털어 ‘장수하는 사람이 인간답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는 ‘히구치 게이코 상’을 창설한 것이다. 2022년 12월 제1회 ‘히구치 게이코 상’ 수상자들에게 상장이 전달됐다. 2023년에는 WABAS의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뜻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바야흐로 히구치 게이코를 중심으로 40년에 걸쳐 전개되어 온 고령사회 여성운동의 1막이 닫히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그동안 개호보험의 창설과 활성화를 중심으로 평가되어 온 히구치 게이코와 WABAS의 활동을 고령사회에서 새로운 여성상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조명하고 분석해 보려는 시도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조응하면서 40여 년간 전개해 온 WABAS의 활동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귀여운 할머니’ 담론과 어떻게 맞물리고 결합해 왔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귀여운 할머니’를 바라느니 세상을 바꾸겠다: ‘더 나은 고령사회를 위한 여성의 모임’

WABAS의 활동을 귀여운 할머니 담론에 맞선 새로운 노년 여성상의 모색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하겠다고 했으니, 먼저 귀여운 할머니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자생적 담론이 대개 그렇듯 할머니와 귀엽다의 결합은 다양하게 의미가 분기하면서 다중적 구조를 형성해 온 까닭에 귀여운 할머니를 단일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아사히신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かわいいおばあちゃん’을 검색해 보면 1985년부터 2021년에 걸쳐 총 41건의 결과가 나온다. 신문기사의 용례를 바탕으로 ‘귀여운 할머니’의 공통점을 추려 본다.

우선 외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것이 붙임성 좋고 싱글벙글한 얼굴이다. 물론 단정하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차림도 중요한 요소다. 한편 자질에서 공통점을 도출하는 것은 외양만큼 간단하지 않다.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고”, “늘 상냥하고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귀여운 할머니라는 것은 쉽게 수궁이 간다. 하지만, “일찍이 전쟁미망인이 되어 마을에서 제일가는 일꾼으로 불리던 우리 귀여운 할머니”라거나, 메이지 시대에 태어나 “여성의 자립이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운동에 생애를 바친 참정권 운동가였던 우리 귀여운 할머니”라고 하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이럴 때의 ‘귀엽다’는 그저 화자의 싫고 좋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매한 대로 귀여운 할머니의 공통적 자질이란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라고 해 두자.

새로운 노년 여성상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WABAS의 활동을 살피면서 굳이 ‘귀여운 할머니 담론에 맞선’이라고 범위를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직접적인 이유는 1990년 WABAS 전국대회에의 대주제 중 하나가 ‘85세의 나: 귀여운 할머니라고 불리고 싶은

가?’였기 때문이다. 당시 58세였던 히구치 게이코의 사회로 여성학자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 당시 42세), 문학평론가 시미즈 요시코(清水好子, 당시 69세), 요미우리신문 기자 출신 여성센터 관장 가나모리 도시에(金森トシエ, 당시 65세)가 패널로 참가해 1시간 정도 토크를 진행한 기록이 남아 있다.⁴

필자는 2016년 아마나시현(山梨県)의 고후시(甲府市)에서 개최된 제35회 전국대회와 2017년 도쿠시마현(徳島県)의 도쿠시마(徳島)에서 개최된 제36회 전국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WABAS에서 전국대회의 대주제로 선택된다는 것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웃음’과 ‘박수’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 기록을 보면서 뜨거운 현장 반응을 상상해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사람이 나는 대화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WABAS가 추구하는 노년 여성의 상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이후의 활동에서 그것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거슬러 따져볼 수 있는 원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1990년 전국대회에서 귀여운 할머니를 주제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살펴보자. 사회자인 히구치 게이코가 다음과 같은 말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

귀여운 할머니라는 말에 울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외로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에 있는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손들어주세요. 꽤 계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나는 싫다, 귀여운 할머니라고 불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회장에는 그렇게 불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약간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단상 위의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4 高齢化社会をよくする女性の会 編, 『女・老いをひらく: 第9回女性による高齢化社会シンポジウムの記録』,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1991.

단상 위의 패널 3명은 모두 어려서부터 귀염성 없다는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귀여운 할머니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특히 우에노 지즈코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청중의 웃음을 끌어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귀여운 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 게다가 (결혼을 안 했으니) 귀여운 부인도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귀여운 딸내미도 아니고 귀여운 부인도 아니었던 인간이 나중에 귀여운 할머니가 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까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신 분들 중에서 귀여운 할머니라고 불리고 싶다고 생각한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귀여운 부인, 귀여운 아줌마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지금 불리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장래에 그렇게 되는 건 무리가 아닐까요(웃음).

그리고 당시 5년째 남편과 함께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던 시미즈 요시코는 귀여운 할머니 원망(願望)이 높아지는 것을 개호 문제와 연결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나중에 정성스러운 개호를 받고 싶으니까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노력으로 노후를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알파킴니다. ...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인이라면, 대상이 귀엽든, 귀엽지 않든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처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업인으로서의 교육이니까요(박수). ... 그러니까 노후가 걱정된다면 귀여워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의사든 요양보호사든 개호 인원을 늘리고 그들의 대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직업인이라도 피곤하면 지치니까요. 개호를 개인의 선의나 애정에 기대서 해결하려는 것은 헛된 노력이고 잘못된 계산입니다.

귀여운 할머니가 아니라면, 어떤 할머니로 불리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가나모리는 “귀여운 할머니 말고 매력적인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고, 시미즈는 “사회에 대해 분노할 줄 알고, 유머 감각을 유지하면서, 정신이나 행동에 야비함이 없는 노후”를 꿈꾼다고 우아하게 답변을 했다. 이에 비해 우에노는 “휠체어를 타고서도 시끄럽게 떠드는 심술궂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과격한 답변을 내놓았다. 모두 귀여운 할머니에 대한 거부는 분명했지만 바람직한 고령사회의 노년 여성의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사회자인 히구치는 주최측이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은가’라는 대주제를 설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는 귀여운 할머니의 내용을 따져 보고 비판하자는 것이다. 귀여움을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것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수동적인 태세가 아니라, 오히려 귀염성 없는 심술쟁이 할머니 쪽이 스스로를 제대로 책임지는 떳떳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점을 부각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돌봄을 받아들이는 법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모임이 이제까지 개호를 하는 쪽의 어려움과 부담에 관해서는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개호를 받는 쪽에서 어떻게 하면 능숙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 자립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다가, 언젠가 자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들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제는 생각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아 ‘귀여운 할머니’라는 주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간호사,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등이 모인 곳에 가 보면 마음으로부터 귀엽다고 생각해서 수발을 들어주고 싶은 고령자가 있는가 하면, 일이니까 하긴 하지만 정말로 밍상이라서, 별로 수발을 들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기분을 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동시에, 내가 그 귀여운 할머니

축에 들 수 있을지 염려를 하게 됐습니다. ... 그래서 '귀엽다'처럼 강자에 대비되는 약자의 중순이라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 이쪽도 인간적으로 감사를 보내면서 타인의 수발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간, 그런 인간상을 함께 찾아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봄의존의 관점에서 귀여운 할머니 담론을 검토해 보자는 히구치의 제안은 패널들 사이에서 공명하지 못하고 헛돌았다.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귀여움을 대신할 다른 언어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자립이 아닌 인간 존재의 취약성에 대한 환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패널들의 대화는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일본에서 애초에 왜 귀여운 여자가 사랑받는가에 대한 성토로 초점이 변경되었다.

일본 남자가 왜소해서, 자기보다 작고, 예쁘고, 약하고, 귀여운, 여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 때문에 여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감추고 미숙함을 가장해서 살아가길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런 사회에서는 귀엽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칭찬이다, 귀엽지 않다는 말을 듣는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랑으로 삼겠다고 생각한다고 패널들이 목소리를 높였고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렇듯 자립의 대극점에 있는 의존과 취약함의 문제는 필자가 밑줄을 쳐둔 구절들에서 보듯 일찍부터 WABAS 내에서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자립 지원과 임파워링(empowering)에 초점을 두고 운동이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탐구되고 계발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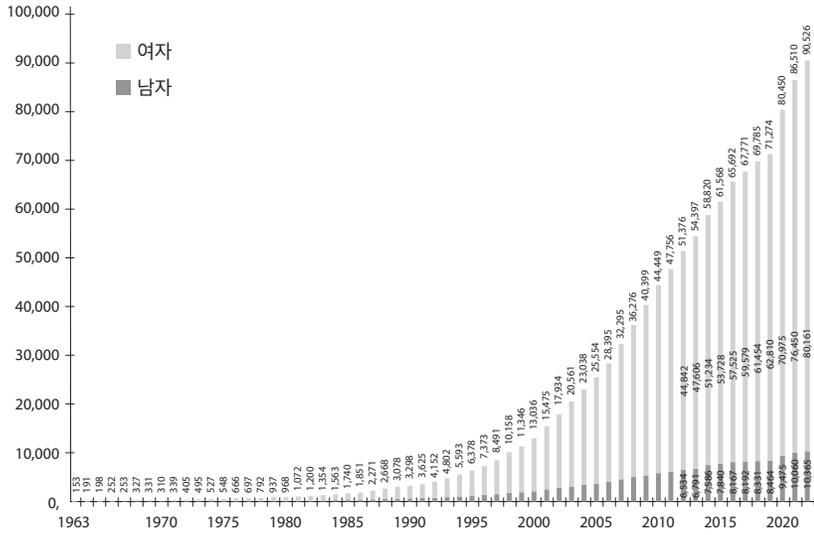
3. 고령사회의 상징이 된 ‘귀여운 할머니들’:

킨상·긴상(きんさん・ぎんさん)

전후 일본은 단기간에 평균 수명이 30세 가까이 늘어난 장수혁명을 겪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평균 수명의 증가에 비례해 보통 사람의 기대 수명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를 보여 왔다. 앞서 언급한 WABAS의 1990년 심포지엄 ‘85세의 나: 귀여운 할머니라고 불리고 싶은가?’에서 제시한 85세는 40세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여성 열 명 중 여섯 명이 85세를 넘긴다는 인구통계를 근거로 설정한 것이었다. 즉 1990년에 이미 두 명 중 한 명이 85세 이상을 살게 될 것이라는 숫자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2014년의 조사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는 본인의 수명은 80세를 밑돌고 있었다. 2014년 후생노동성이 위탁해 실시한 건강의식에 관한 조사를 보면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와 ‘당신은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설문 항목이 있다. 40~64세 응답자는 내가 살고 싶은 나이로 여성은 77.23세, 남성은 80.28세라고 답했다. 한편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여성 76.13세, 남성은 76.63세에 불과했다.

그런데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안전생명표를 보면 2014년 현재 64세의 평균 수명은 여성 85.07세, 남성 80.08세였다. 남녀 모두 현실에서 살 수 있는 나이보다 기대수명을 짧게 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남성보다 여성이 오래 사는 현실과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빨리 죽고 싶어한다는 이런 조사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돌봄제공자로 살아온 여성들이 돌봄의존자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의 자기 이미지를 더 상상하기 어려워한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일본인은 수십 년째 자신은 80세 언저리에 죽게 되지 않을까 상상해 왔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원하지 않아도 누구나 오래 사는 사회가 되



〈그림 1〉 100세 이상 고령자 수의 연차별 추이

출처: 후생노동성,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상상 및 기념품 증정」, 2022.

있고, 보통 사람도 “백 살까지 살 각오”(가스가 기스요, 2019)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100세 이상의 인구는 1990년 3,298명 이던 것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2년에는 9만 526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100세 이상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00세가 된 자신은 상상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이고 대비가 불가능한 생활의 불안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인에게 100세가 축복이나 재앙이나 묻는다면 재앙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킨상·긴상이라는 애칭으로 널리 알려진 나고야의 쌍둥이 자매, 나리타 킨(成田きん)과 가니에 긴(蟹江ぎん)은 장수가 본격적으로 근심거리로 여겨지기 시작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등장해 단숨에 유명해졌고 ‘100세 아이돌’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1892년에 태어나 2000년과 2001년에 잇달아 사망한 킨상·긴상은 초고령자가 허약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초로 두 사

람의 스타성을 알아보고 통관잡지 광고에 등장시킨 전 카탈로그하우스 사장 사이토 스스무(斎藤駿)는 킨상·긴상과의 만남을 이렇게 회고했다.

1991년 9월 15일 경로의 날, NHK 나고야발 뉴스에 비친 두 사람은 내년엔, 100세를 맞이한다고 했다. 보자마자 다음날 광고대리점을 연결해, “통관생활 잡지의 텔레비전 광고에 출연해 주지 않겠냐”고 요청을 넣었다. 예상대로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나이트 부모를 광고에 내보내서 돈벌이 하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출연료를 전부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면 어떠냐”고 제안했고, 설왕설래 끝에 간신히 허락을 얻었다. 언니인 킨상의 집에서 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NHK 텔레비전 이미지와 다르게 쇠약해 보이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광고에서 착용할 기모노 이야기에 접어든 순간, 그때까지 잠자코 앉아 있던 킨상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골방에 가서 기모노가 든 상자를 꺼내 왔다. … 킨상이 광고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1992년 1월, 드디어 광고가 시작되었다. 이가 없는 입을 벌리고 활짝 웃는 킨상의 얼굴과 애드립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킨상의 재치. 즉시 두 사람은 이런 저런 이벤트에 불려다니게 되었다. 이번에는 내가 가족에게 “건강,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처음에는 우리들도 걱정을 했는데, 광고나 이벤트에 불려다니게 된 후에 마치 딴사람처럼 건강해져서…”⁵

킨상·긴상 붐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91년 경로의 날부터 1992년 경로의 날까지 1년간 두 사람이 받은 명함만 도합 920여 장, 도착한 편지나 선물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이 초청을 받아 방문하는 곳마다 국민 아이돌을 보기 위해 군중이 몰려들었고 킨상·긴상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두 사람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도 다 헤아리기 어려

5 斎藤駿, 「きんさん・ぎんさん」, 『文芸春秋』 2023년 1月号, 2023, 380쪽.

울 정도로 부지런히 발매되고 팔려 나갔다. 낚시·낚시는 장수사회 희망의 아이콘이자 무해한 웃음과 유머로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해 주는 ‘귀여운 할머니’의 전형이 되었다. 두 사람이 스시를 즐겨 먹는 까닭에 초청행사의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스시 먹방’이 포함되었고, 이 때문에 ‘귀여운 할머니’라면 고기보다는 생선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낚시·낚시의 활약은 귀여운 할머니라는 장르를 확정하고 관습을 구성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성공한 마케팅 덕분에 귀여운 할머니를 평범한 사람이 추구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까지 밀어 올려 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4. 자립적 여성의 나이듦과 돌봄의존자 되기

필자는 2016년부터 WABAS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WABAS가 주최하는 학습모임과 심포지엄에 참가했고 도쿄의 사무국을 방문해 운영위원회를 참관하고 문헌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렇게 얼굴을 알리고 난 후 히구치 게이코 대표와 사무국장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고, 2019년에는 <더 나은 고령사회를 위한 여성의 모임·오사카>의 운영진과 그룹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렇듯 현장조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장기화된 이유는 조사를 틈틈이 진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구 질문을 풀어가듯 실마리를 찾지 못한 탓이 더 컸다. 필자의 주된 연구 질문은 ‘자립을 추구하던 여성들은 어떻게 돌봄의존자가 되는가’ 즉 나이듦에 따른 여성의 돌봄제공자에서 돌봄의존자로의 위치변경과 역할전환 과정에 대한 해명이었다. 고령사회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60~80대 활동가들이 모인 WABAS는 이 질문을 탐구하기 적절한 현장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막상 조사를 시작하고 보니 WABAS의 활동은 구성원들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와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여성의 자립과 임파워링에 맞춰져 있었고 활동가와 회원 중 다수는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생애 현역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었다. 80대 후반인 히구치 게이코 대표도 좌식 화장실에서 못 일어나는 곤란을 겪으면서도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국 강연을 다니고 있었고, 전국대회에 참가한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듭된 암수술과 만성질환으로 신체 손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흔하게 접할 수 있었다. 고령기를 맞이한 그들에게 어쩌면 WABAS 활동은 생애 현역이라는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결국 연구 질문을 풀어 갈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코비드19 사태로 일본과의 왕래가 중단되었고 히구치 게이코와 WABAS의 활동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WABAS 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난 히구치 게이코는 자신이 노쇠로 비실비실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종말기로 진입했음을 저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2019년 말 잡지에 연재한 글을 모아 엮어 낸 책의 제목은 『老~い, どん!』(2019)이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쇠, 덤벼!’ 쯤 될 것 같다. 이 책이 반향을 얻으면서 2022년에는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의 두 번째 책도 출간했다. 부제가 ‘용쓰며 살아 있는 90세’(どっこい生きてる90歳)였다. 그사이 2021년에는 종말기에 대비한 궁리와 지혜를 담은 『노쇠의 럭키박스』(老いの福袋)도 출간했다. 이 일련의 저작들을 읽으면서 필자는 생애 현역을 추구하는 WABAS와 히구치 게이코에게 자립에서 의존으로의 위치변경 혹은 태세전환을 묻고자 했던 애초의 연구 질문이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먼저 히구치 게이코가 자신의 종말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들어 보자. 아마도 “나는 약하지만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私は非力ではあるが無力ではない)⁶라는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귀가 잘

안 들리게 돼서 평생 해 온 강연이나 심포지엄 등의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고,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고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 갈 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도 왕왕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잘 받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자립”이라는 생각으로 사회활동의 끈을 놓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이어 가고 있다. “앞으로 2~3권 정도 더 쓰고 싶은 책이 남았고, 쓰다가 펜을 쥐고 죽으면 멋지지 않을까?”라는 농담도 던진다. 그리고 “최악해지고 있는 나도 가장 빛나던 시기의 나와 연속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한다”면서 노화가 초래하는 쇠퇴한 부분까지 포함해 자신의 인생으로서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숨김없이 드러내고 세상과 접촉해 가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필자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이러한 다짐들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끊임없이 실패하는가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성찰하려는 자세였다.

히구치 게이코는 지난 수십 년간 돌보는 가족에게 솔직하게 감사를 말할 것과 당당하게 돌봄을 받을 것을 제창해 왔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평생 몬스터맘으로 군림해 왔던 딸과의 권력관계가 역전되어 딸의 잔소리를 듣는 처지가 되고 보니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건 못 참는다’라는 기분이 솟구쳐 딸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말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더라고 고백한다. 또 돌봄에 의존하는 처지에서 당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당사자가 된 후에야 절실하게 느꼈다고 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적었다.

조수를 대동하고 간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인 내가 아니라 조수 얼굴만 보고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부들부들하며 조수에게 말했다. “물론, 의사도 젊고 예쁜 여자가 좋겠지, 그래도 환자는 나잖아?” 그러자 조수가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히구치 씨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때 성의 없게 답변을

6 樋口恵子, 『老~い, どん! 2: どっこい生きてる90歳』, 婦人之友社, 2022, 87쪽.

하셨잖아요?” 확실히 처음 진찰실에 들어갔을 때, 뭔가 질문을 받았는데 마스크까지 끼고 있어서 잘 안 들렸던 탓에, 적당히 답변을 했던 것 같다. 그 반응이 이상해서, 의사는 내가 대화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잘 안 들리면 몇 번이든 다시 물어보세요. 선생님 귀가 잘 들리는지 어떤 지 의사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자기말을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조수의 말을 듣고 반성했다. 멀쩡해 보이고 싶어서, 들리지 않는데도 들리는 척을 해 놓고, 당치도 않게 화를 내고 있던 것은 내 쪽이었다.⁷

히구치 게이코의 노화에 대한 접근은 자립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한 후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립의 방편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다양한 기능 저하를 인정하고 남아 있는 기능이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생애 현역으로 생을 마감하겠다는 이런 경우에는 ‘나’를 잃어버리는 중증 치매 상태에 빠지지 않는 한 자립적 존재에서 돌봄의존자로 위치변경은 일어날 수가 없다. 미약한 힘이라도 남아 있는 한 그것에 의지해 스스로의 자립을 이어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존과 취약함을 극복 대상으로 바라보는 위와 같은 접근은 한계가 분명하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에서 의존으로의 위치변경이나 역할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을 기반으로 한 인간교육과 가치관 그 자체에 대한 재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애초에 인간됨을 자립이 아니라 인간의 취약함에서 발굴하고 그 취약함을 자원으로 다른 존재와의 연결을 추구해 가는 관점이 고령사회 여성운동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7 樋口恵子, 『どっこい生きてる90歳 老~い, どん! 2』, 92~93쪽.

5. 오히토리사마와 고령사회 여성운동의 2막

지금까지 WABAS와 히구치 게이코를 중심으로 귀여운 할머니 담론에 맞선 고령사회 여성운동의 흐름을 새로운 노년 여성 이미지에 대한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귀여운 할머니와 자립지향의 생애 현역이라는 노년 여성의 이미지를 대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지만, 가족이 없는 오히토리사마(おひとり様) 1인 가구 노년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자와 후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커 보일 수도 있다. 귀여운 할머니든 생애 현역이든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밀착된 인간관계의 자원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킨상에게는 번갈아 가며 돌봐주는 든든한 네 딸들이 있었고, 히구치 게이코에게는 함께 사는 딸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조수가 있다. 때문에 가족도 없이 1인 가구로 사는 노인 여성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서는 혼자서 긴 노년기를 보내는 여성의 인간다운 생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휠체어를 타고서도 시끄럽게 떠드는 심술궂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고 독신여성 우에노 지즈코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 왔는지 참고해 보자. 1990년에 42세였던 우에노는 2023년 75세로 막 후기고령기에 접어들었다. 아직 휠체어는 타지 않았지만 정년퇴임 후에도 ‘독설활동’은 순탄하게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우에노는 전직 아사히신문 기자로 최근 미니멀한 라이프스타일 제안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나가키 에미코(稲垣えみ子)와의 대담에서 1인 가구 치매노인으로 집에서 살다 죽기 위한 준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지금의 뇌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두려고 전문의에게 가서 MRI 이미지를 찍고 의료 기록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상태를 데이터로 파악하

고 있으면 변화를 알 수 있고 상담하기 쉬워지니까요. 그리고 방문의사, 방문간호 스테이션, 방문개호 사업소의 담당자들과 친해졌습니다. 개호 사업소와 상담했더니 ‘오히토리사마 플랜’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줬습니다(웃음). 연간 계약으로 정액을 지불하면 자택의 상태를 점검해 주는 것으로, 거기다 열쇠를 맡겨 놓고 있습니다. 유언 집행인도 지명해 두었고, 임의 후견인이 되어 주실 분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⁸

우에노는 몇 년 전부터 치매에 걸려도 내 집에서 살다가 죽는 것에 관심을 갖고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힘을 기울여 왔고, 이제 본인도 그 성과를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인맥과 자원이 우에노만큼 풍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노후 준비는 따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또 치매에 걸리기 전에, 걸리더라도 반드시 내 집에서 죽겠다고 몇 겹으로 확정해 두는 것은 약간 의아하다. 치매 환자가 된 본인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사람일 것이고 그때는 집보다 더 안전하고 편한 시설이나 장소가 좋을 수도 있는데, 모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둘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이다. 마이홈 구축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해 온 단카이(団塊) 세대의 감성과 개인적 특성이 합작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필자는 우에노보다는 차라리 “물건보다 사람을 모은다”는 이나가키 에미코의 접근방식이 더 범용해 보인다. 독신여성인 이나가키는 50세가 되던 해 아사히신문을 퇴사한 후 시타마치(下町)에 저렴한 월세집을 얻어 최소한의 물건과 자원만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미니멀한 라이프스타일 실천을 책으로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다. 물건을 줄이고 돈을 안 쓰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을 쏟으면서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8 「上野千鶴子×稲垣えみ子「認知症の母を苦しめた《幸せな老後》のイメージ」最後まで、ご機嫌な独居老人でいよう上野千鶴子・稲垣えみ子」、『婦人公論』, 2020年11月29日, <https://fujinkoron.jp/articles/-/2099>(최종검색일: 2023. 1. 30.).

내가 만약 입원을 하면 누가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에 떠오른 것이 '뜨개질 친구들'인데요, 주 1회 정도 3명이 함께 뜨개질을 하고 있을 뿐인 느슨한 사이인데, 분명 가져다줄 거라고 ... 집열쇠를 주면서 놓아둔 장소를 알려주는 게 나도 부끄럽지 않고 저 쪽도 '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확실히 누구 한 명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나의 인간다움은 타자의 승인을 통해서만 확보된다. 우에노처럼 사회적 승인을 획득할 채널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내 곁에 있어 줄 의미 있는 타자를 만드는 것이 노후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과제다. 그것이 '가족'과 같은 강한 연결일 필요는 없다. 이나가키가 "물건보다 사람을 모으자"고 결심한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 향후 일본의 고령사회 여성운동의 새로운 국면은 아마도 이나가키처럼 적극적으로 새로운 연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노년상을 제시해 갈 것인지 기대해 본다.

山泰幸, 「語り合う場のデザイン: 哲学カフェの試みから」, 『DPRI NEWSLETTER』101号, 京都大学防災研究所, 2022.

장수사회의 불안과 '귀여운 할머니'에 맞선 40년: 고령사회 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 지은숙

가스가 기스요, 『백 살까지 살 각오는 하셨습니다?: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은 노년을 위한 100세 인생 지침서』, 아고라, 2019.

高齢化社会をよくする女性の会 編, 『女, 老いをひらく—第9回女性による高齢化社会シンポジウムの記録』,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1991.

樋口恵子, 『老~い, どん! あなたにも「ヨタヘロ期」がやってくる』, 婦人之友社, 2019.

樋口恵子, 『老いの福袋: あっぱれ! ころばぬ先の知恵88』, 中央公論新社, 2021.

樋口恵子, 『老~い, どん! 2: どっこい生きてる90歳』, 婦人之友社, 2022.

女の自立と老いを考える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 『第一回女性による老人問題シンポジウム報告書』, 1982.

斎藤駿, 「きんさん・ぎんさん」, 『文芸春秋』2023年1月号, 2023.

『婦人公論』, 2020年11月29日, “上野千鶴子×稲垣えみ子「認知症の母を苦しめた《幸せな老後》のイメージ」最後まで, ご機嫌な独居老人でいよう上野千鶴子・稲垣えみ子, <https://fujinkoron.jp/articles/-/2099>(최종검색일: 2023. 1. 30.).

『婦人公論』, 2022年7月29日, “介護保険の母”樋口恵子, 乳がん発見を機に90歳の決断, “みんなが少しでも生きやすくなるように, そんな表彰ならあってもいい”, <https://fujinkoron.jp/articles/-/6284>. (최종검색일: 2023. 1. 28.).

연구논단

스즈키 하루노부의 <곤레이 니시키 미사오 구루마>와 에도 중기 결혼 풍속의 소비문화적 특징 | 김정희

김금화·이명숙, 「미쯔이(三井) 가문의 후리소데(振袖)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학회』16집 3호, 2013.

신혜성, 「일본전통 혼례복의 디자인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18집 2호, 2012.

종합여성사연구회, 『성, 사랑, 가족을 통해 본 일본 여성의 어제와 오늘』, 어문학사, 2017.

池修, 『有職の文様』, 光村推古院, 2016.

今井重男, 「江戸時代の婚礼習俗とそのビジネス性」, 『千葉商大論叢』52卷 2号, 2015.

植木淑子 外, 「三井家伝来小袖服飾類に関する服飾文化史的研究: 現存遺品と丸山派裳下絵との関係を中心に」, 『服飾文化共同研究報告』, 2010.

加茂瑞穂, 「祐信の服飾意匠とその特徴: 風俗絵本と小袖雛形本を手がかりに」, 石上阿希 編, 『西川祐信を読む』, 立命館大学アート・リサーチセンター, 2013.